남산의 절반 준설토 농지 재활용

일부 제방 쌓고 골재 판매도
집중 호우땐 지천 침식 우려

1일 찾은 나주시 영산동 일대 '관정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은 영산강 살리기 현장에서 반입된 47만㎥의 준설토로 덮여 있었다. 상대적으로 1.5m 낮은 곳에 위치했던 농경지는 주변과 비슷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성토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작물 재배에 들어갈 것"이라며 "농경지 소유자들의 의향조사와 동의서를 받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설 사업'은 영산강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찬·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강 바닥에 퇴적돼 있던 토사 준설로 인한 문제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면서 여전히 진행형이다.

나주시 금천면의 고동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 . 영산강의 준설토를 활용, 저지대인 농지를1.4m~1.84m 높이로 성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준설 현황과 문제점

◇강바닥에서 2467만㎥ 토사 걷어내=익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준설량은 2351만㎥로, 전체 준설 구간(8개)에서 나오는 준설토 2467만㎥(서울 남산의 절반크기)의 95.3%에 달한다. 구간별 준설량은 ▲1공구(42만3000㎥) ▲2공구(233만1000㎥) ▲3공구(513만㎥) ▲4공구(218만4000㎥) ▲5공구(275만7000㎥) ▲6공구(724만3000㎥) ▲7공구(188만8000㎥) ▲8공구(38만8000㎥) 등으로, 이 가운데 1567만㎥는 영산강 살리기 현장이나 공공사업장에서 활용됐다. 예컨대 승촌보 공사현장인 6공구의 경우 10만평의 구하도 공원 조성에 180만㎥의 흙이 사용됐고 완만한 경사의 제방을 쌓는데도 이 준설토가 쓰였다.

나머지 700만㎥의 토사는 농경지 성토(盛土·흙을 쌓는 것)용으로 사용됐다. ▲광주시 서구 용두지구(275만㎥) ▲나주시 동강면 옥정지구(67만㎥) ▲나주시 이창동 이창지구(67만㎥) ▲나주시 금천면 고동지구(222만㎥) ▲나주시 영산동 관정지구(47만㎥) ▲함평군 학교면 월호지구(26만㎥) 등의 저지대 농경지를 높여 침수피해 방지 및 농지개량 용도로 쓰였다. 현재 관정지구·이창지구·용두지구의 경우 목표했던 준설토가 모두 반입된 상태다.

아울러 일부 준설토는 골재(200만㎥)로 활용, 판매되고 있다.

◇준설, 위험한가?=학계와 환경단체 등은 준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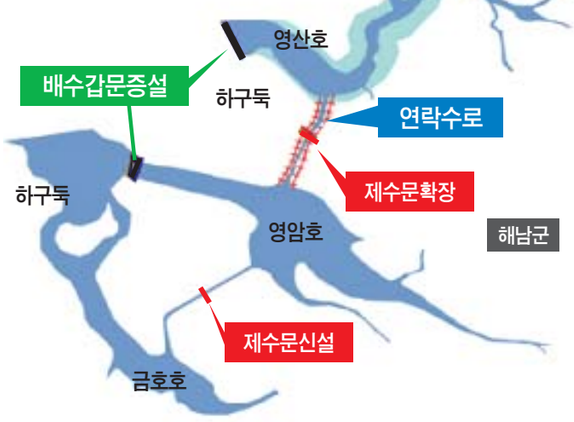
우선, 대규모 준설로 인한 부작용을 내세운다. 강 바닥을 깊게 파내면서 홍수 위험,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정부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승휘 호남대 교수는 지난해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주체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준설로 수심이 깊어질 경우 어류 생태계의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준설된 퇴적토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농경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경지 성토용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익산청측은 그러나 "지난해 85㎜의 비가 왔을 때 잠겼던 6공구 일대 고수부지는 최근 내린 148㎜의 비에도 잠기지 않았다"면서 "역행침식도 준설이 아닌,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며 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사면보호공'을 통해 유실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빨리하다 날림공사 제방 언제 붕괴될지 걱정

환경단체 속도전 중단촉구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영산강 현장조사를 통해 제방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모한 속도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사업중단을위한광주전남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영산강 사업 현장은 집중호우로 쓸려 내려갈 곳이 허다하고 강바닥 준설과 보 건설로 홍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28일과 29일 4대강사업 시민조사단과 함께 담양습지부터 나주 다시 죽산리까지 영산강 사업 2~8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벌였다.

공동행동은 ▲4대강사업 때문에 재수립한 영산강 하천기본계획과 다른 시공 ▲새로 공사한 저수호안 대부분 유실위험 ▲하천 내 구조물 접합부분 유실 ▲지천 역행침식 ▲준설한 본류 구간 재퇴적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들은 "상류인 6~7공구는 암반층 때문에 준설 설계에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정 없이 그대로 공사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원형 보전상태 우수로 습지보호 지정 계획을 발표했던 월산보, 송월동 습지는 현황 조사도 없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본류와 만나는 30여개 지천 대부분에서 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침식이 확산되는 역행침식 조짐이 보였고 준설을 마친 본류 구간에 흙이 다시 쌓이는 상황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대규모 준설에 따른 호안, 제방, 구조물, 지천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며 "정부는 추석 완공을 목표로 한 무모한 속도전을 중단하고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홍수문제와 자연습지·대체습지 조성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옆):032)329-4400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극장 앞):055)745-9870 창원점(한마음병원 뒤):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